

한국 청년의 정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김경희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청년의 정서 유발 원인과 표현 방식에 관한 특징을 추출하여 한국 청년의 정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의 대학생 400명(남자 대학생 218명, 여자 대학생 182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12개 정서의 유발 원인과 표현 방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과 통계적 분석으로 처리되었다. 유발 원인에서는 놀람, 슬픔, 우울, 공포-불안, 수줍음, 사랑 등 6개 정서에서, 표현 방식에서는 놀람, 슬픔, 분노, 공포-불안, 수치심 등 5개 정서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서에 관한 기초적이고 탐색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른 심리학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미래 연구 과제들이 제안, 논의되었다.

정서가 체계적으로 연구된 것은 Wilhelm Wundt가 1897년 Leipzig에 심리학 실험실을 창설한 후부터라고 보고있다. 그 이후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정신 활동을 성격, 인지, 정서적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정서는 1980년 이후 다시 활발한 연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0세기 초까지 정서는 감정(affect, feeling, Gefühl)과 동일한 것으로, 또는 혼동되어 사용되었다. 감정이란 용어는 여러 다른 용어들, 곧 불안, 분노, 사랑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일정한 범주로 통합할 필요가 생겼다. 따라서 Kellerman(1983)은 정서를 수용, 혐오, 기쁨, 슬픔, 기대, 놀람, 분노, 공포의 8개로, Izard(1991)는 흥미, 즐거운 기쁨, 놀

람, 슬픔, 우울, 분노, 혐오, 공포-불안, 수줍음, 수치심, 죄책감, 사랑 등 12개로 정서를 범주화하고 있다. 현재 정서는 여러가지 감정들을 포괄하는 광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서 정서 연구와 정서이론은 주로 정서의 생성문제와 정서 내용의 다양성을 차원화시키려는 시도에 집중되어 왔다. 예컨대 Darwin 이후에, Wundt는 정서를 세가지 차원의 결합체계, 곧 쾌-불쾌, 흥분-진정, 긴장-이완으로 보았는데, 이는 정서 연구의 고전이 된다. 정서 양양 원인에 따라 Rohracher는 정서를 동인적 정서, 감각적 정서, 그리고 성격적 정서로 분류했다(김경희, 1995, p. 12).

Schlosberg(1953)의 분류는 정서를 사회적 환경과

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Traxel(1962)은 유쾌한-불쾌한, 글복-우울의 차원에 따라 제작된 척도를 사용하여 정서를 분류하고 있다.

Schachtel과 Singer(1962)는 인간이 직접 설명할 수 없는 생리적 흥분 상태를 상황에 대한 인지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즉, 생리적 흥분 상태는 선행된 상황에 의존해서 분노, 기쁨, 공포 등으로 체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정서 연구는 심리학적, 생리적 모델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서에 따른 인지적, 정보이론적 과정에 관한 것과, 인공 두뇌적 피드백 원리에 관한 모델들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정서 표현이 학습되고 사용되는 방식(Davitz, 1969), 지각된 자극과 그에 수반되는 경험과의 비교(예: 기억 내용, Sokolov, 1960), 정서에 의한 환경연상의 제한(Easterbrook, 1959), Arnold와 Lazarus(1966)에 의한 정서 평가에 관한 것이 이에 속한다. 인공 두뇌적 피드백 원리에 관한 것으로는 정서를 동질정체적(homeostatic) 조정으로 설명하려는 연구가 있다. Stampfl(1966)은 정서로 야기된 긴장 에너지가 자유 방출되어 정화의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Pribram(1967)은 개인이 정서 양양시에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정서 연구의 문제점

정서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어서 정의하기도 힘들고 측정의 문제는 더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서에 관한 측정법으로는 양적 기술보다는 질적 기술이 강조되고 있다.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하여 여러가지 정서를 일으키게 한 사태에 관해서 많은 수의 자기-보고를 얻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잠정적으로 정서를 야기시키는 사태의 범위와 정서 발생에 1차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특징들과 관련된 확실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태의 범위와 다양성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덧붙여서 이러한 절차를 사용하면 현실적 정보의 지침을 얻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서 연구의 첫번째 문제점은 실험적 유도나 현장 관찰법에서 나타나는 제한점을 들 수 있다. 즉, 실험적 유도는 윤리적인 문제 뿐 아니라, 자아가 관여되어 있는 사태 특징과 사태를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Wallbott & Scherer, 1985). 현장 관찰법은 대부분 정서들이 갖는 사적인 본질과 공적으로 나타나는 정서 반응에 대한 예언도가 낮다. 따라서 Wallbott와 Scherer는 자기 보고된 정서-유발 사태의 대표적인 것을 수집하면 실험실의 조작이나 현장 관찰의 사태적 특징들을 선택할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서 연구의 두번째 문제점은 고도로 분화된 반응 유형을 갖는 기본 정서의 존재에 관한 것이다(Izard, 1977; Plutchik, 1980; Tomkins, 1962, 1963).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충분한 증거를 얻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어떤 연구자들은 얼굴 표정(Ekman & Oster, 1989; Izard & Buechler, 1979), 감정 상태(Asendorpf, 1984; Izard, 1977; Schwartz & Weinberger, 1980), 음성 표현(Scherer, 1981, 1985, 1986)등과 같은 정서 요소의 제한된 하위 성소만을 연구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에게서 특수한 정서 에피소드에 대해서 동시에 모든 종류의 정서 요소를 연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기-보고 기법을 통해서 정서 상태의 분화성 문제를 접근해 가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서연구의 세번째 문제점은 정서 반응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의 중요성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차와 개인 특성(예컨대 성별, 연령, 성격, 지능 등)도 함께 고려하는 미래 연구가 절실하다.

정서 연구의 네번째 문제점은 정서 경험의 통제와 조절에 관한 것이다. 정서 표현은 엄격한 사회적 통제를 받는다는 사실은 정서 연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Wundt(1905)는 문명인일수록

다른 사람의 기대에 자기 정서를 맞추려 하기 때문에 얼굴 표정과 몸짓을 통제하고 특수한 감정의 가면을 쓰고 표현한다고 지적했다. 정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시도는 객관적으로 연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어떤 조절 과정은 의식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 대한 보고는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서 측정법으로서 질문지법

정서 연구에 사용되는 측정법에는 면접법, 질문지법, 그리고 투사법 등이 있는데, 질문지를 사용하는 것이 정서적 경험 연구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Plutchik & Kellerman, 1986). 정서적 경험을 질문지로 측정하는데 대한 회의가 있는데, 이는 "정서적 경험"이라는 주제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질문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질문지가 갖는 몇가지 문제점은 피험자의 자아 방어, 사회적 바람직성 효과, 반응 태도(set), 사회적 상동형(stereotype) 등에 기인한 반응 일탈을 들 수 있다.

최근 질문지를 사용하는 연구들은 특수한 정서를 일으키는 사태나 사건들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로부터, 어떤 한가지 정서에 대한 연구들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불안과 공포의 원인(Bernstein & Allen, 1969; Geer, 1965; Magnusson & Stattin, 1981, 1982; Rose & Ditto, 1983), 질투(Hupka, 1981), 분노(Averill, 1982), 수치심(Wicker, Payne, & Morgan, 1983), 그리고 주관적 경험된 생리학적 각성에 대한 연구(Pennebaker, 1982) 등이다.

이상의 연구들이 사용한 질문지는 정서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Wallbott과 Scherer(1989)는 이론적 고찰에 근거하여, 보다 포괄적인 질문지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정서를 일으키는 사태의 특징,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 정서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적 특징(예: 강도와 지속 시간), 언어적, 표현적, 생리적 반응의 특징, 그리고 피험자의 통제 및 조절 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3차례에

걸쳐 질문지의 타당성 및 문항을 완성시켰다.

제 1차 연구는 1985년 Scherer, Summerfield와 Wallbott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번역해서 비교했는데, 신뢰도는 미국에서, 그리고 국가간에는 80% 이상이었다.

제 2차 연구는 1986년에 수행되었다. 1차의 5개국 이외에 이스라엘, 벨기에, 스페인을 추가해서 8개 나라에서 시행되었다. 이 질문지는 개방형이었으며, 연령, 성별, 부모 직업, 학력, 사회 경제적 지위를 포함시켰다.

제 3차 연구는 같은 해(1986)에 8개 나라의 1,400여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2차 연구를 토대로 3차 연구의 질문지에서는 정서 지속 기간을 9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여 완성시켰다(Plutchik & Kellerman(eds.), 1989, pp 70-71).

세 연구 사이에 흥미있는 차이는 분노 반응과 경험의 통제에 대한 것이었다. 1, 2, 3차 연구에서 유럽내에서는 분노는 평균보다 더 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자들(Scherer et al.)은 이러한 차이를 유럽의 사회적 규범이 분노 표현을 통제하도록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내에서는 정서에 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에 관한 기초적이고 탐색적인 연구 성격을 가지고, 정서의 유발원인과 표현 방식에 관한 특징을 추출하여 정서의 본질을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정서 유발 원인과 표현 방식이 사회적 규범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성차가 있는지도 규명하고자 한다.

방 법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 소재 연세 대학교(문과대, 사회과학대, 교육과학대, 생활과학대) 2, 3학년 학생 400명으로, 이 가운데 남자 대학생이 218명, 여자 대학생이 182명 이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개방형 질문지로서, Izard(1991)의 제안에 근거하여, 12개의 정서들의 유발 원인과 표현 방식에 대해서 피험자가 경험한 것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 12개의 정서는 흥미, 기쁨, 놀람, 슬픔, 우울, 분노, 혐오, 공포-불안, 수줍음, 수치심, 죄책감 및 사랑이다. Izard의 12개 정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자료에서도 일관적인 유형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가 유발 원인과 표현 방식을 선택한 것은 이들이 정서의 중요한 지시자(indicator)로 알려진 데 기인한다(Izard, 1991, pp. 49-51).

절차

본 연구의 조사는 1994년 11월부터 12월에 걸쳐 본 연구자와 2명의 자료 수집원이 함께 담당 과목 교수들의 협조를 받아서 종강시에 검사를 실시하였다. 소요된 시간은 70-80분 이었다.

분석방법

내용분석

12개 정서에 대해서 피험자가 기술한 정서 유발 원인과 표현 방식은 본 연구자와 2명의 연구 조원이 내용을 분석하여 범주화 하였다. 범주화는 Izard의 결과에 기초하였다. 3명 간의 일치도는 .85~.95였다.

통계적 분석

정서 유발 원인과 표현 방식에 대해서 범주의 빈도를 산출하고 이 빈도의 차이에 성차 여부는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흥미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흥미를 유발하는 원인은

남녀 모두 신기한 대상, 유사한 것, 성취욕구를 자극하는 것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적극적, 소극적 탐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 정서의 유발원인과 표현 방식에서 성차는 없었다.

표1. 흥미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

유·발·원·인	범주	성별		계			
		n	%	n	%		
유발원인	신기한 대상, 사물	208	66.80	177	65.31	385	65.03
	유사한 것	77	23.99	72	26.57	149	25.17
	성취욕 자극	36	11.21	22	8.12	58	9.80
계		321	100.00	271	100.00	592	100.00
표현방식	적극적 탐색	201	70.03	180	76.27	381	72.85
	무관심	27	9.41	13	5.51	40	7.65
	소극적 탐색 (신체적 표현 등)	59	20.56	43	18.22	102	19.50
계		287	100.00	236	100.00	523	100.00

* $\chi^2 = 1.833$, n.s., ** $\chi^2 = 3.692$, n.s.

2. 기쁨

표 2에서 보는 바와같이, 기쁨을 유발하는 원인은 남녀 모두에게 욕구 충족,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갖는 것, 인정을 받는 것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쁨 때 표현 방식은 웃는 것, 대화를 하는 것(share), 신체적 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있는 것은 기쁨 때 표현하지 않는 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쁨의 유발 원인과 표현 방식에 의미있는 성차는 없었다.

표 2. 기쁨의 유발원인과 표현

유* 범주	성별		남		여		계		
	n	%	n	%	n	%	n	%	
발원인	인정받는 것	60	15.91	72	19.41	132	17.65		
	육구 충족	234	62.07	201	54.17	435	58.15		
	만족스런 대인관계	69	18.30	83	22.37	152	20.32		
	종교적 체험	3	.80	4	1.08	7	.94		
	경제적 여유	6	1.59	2	.54	8	1.07		
	선물 받는 것	5	1.33	9	2.43	14	1.87		
계	377	100.00	371	100.00	748	100.00			

표** 현 방 식	웃음	114	30.81	122	36.85	236	33.67		
	표현하지 않음	89	24.05	69	20.85	158	22.54		
	대화	89	24.05	88	26.59	177	25.25		
	신체적 표현	73	19.73	49	14.80	122	17.40		
	기도함	5	1.36	3	.91	8	1.14		
	계	370	100.00	331	100.00	701	100.00		

* $\chi^2 = 8.122$, n.s., ** $\chi^2 = 5.878$, n.s.

3. 놀람

표 3. 놀람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

유* 범주	성별		남		여		계		
	n	%	n	%	n	%	n	%	
발원인	예기치 못한 사건직면	253	83.33	203	78.68	456	81.72		
	감각적, 신체적 자극	30	10.00	51	19.77	81	14.52		
	기타 (놀라지 않음)	17	5.67	4	1.55	21	3.76		
인	계	300	100.00	258	100.00	558	100.00		

표** 현 방 식	표현하지 않음	64	22.94	30	12.45	94	18.08		
	신체적, 언어적 표현	154	55.20	165	68.46	319	61.34		
	원인을 생각함	61	21.86	46	19.09	107	20.58		
	계	279	100.00	241	100.00	520	100.00		

* $\chi^2 = 15.093$, $p < .001$, ** $\chi^2 = 12.068$, $p < .01$

놀람의 유발 원인으로 남녀 모두 예기치 못한 사건에 직면하는 것, 감각적·신체적 자극을 받는 것을 들 수 있고, 놀랐을 때 표현 방식으로는 신체적, 언어적 표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유발 원인에서 남학생의 경우, 놀라지 않는다는 수가 상당히 있다는 것과 표현 방식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적, 언어적 표현을 한다는 것은 유의할만 하다. 흥미있는 것은 남학생의 상당수가 놀람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결과이다. 놀람의 유발원인과 표현 방식에서 보이는 성차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이다.

4. 슬픔

표 4. 슬픔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

유* 범주	성별		남		여		계		
	n	%	n	%	n	%	n	%	
발원인	이별	70	17.81	67	25.09	137	20.76		
	친한 사람의 사망	38	9.67	25	9.36	63	9.55		
	목표 성취 좌절	143	36.39	123	46.07	266	40.30		
	불행한 사건들의 인지 결과	142	36.13	52	19.48	194	29.39		
	계	393	100.00	267	100.00	660	100.00		

표** 현 방 식	울음	83	25.94	147	45.09	230	35.60		
	거짓(어색한)웃음	10	3.12	6	1.84	16	2.49		
	표현하지 않음	83	25.94	51	15.64	134	20.74		
	대화	18	5.62	35	10.74	53	8.20		
나름대로 해결	126	39.38	87	26.69	213	32.97			
계	320	100.00	326	100.00	646	100.00			

* $\chi^2 = 22.780$, $p < .001$, ** $\chi^2 = 38.992$, $p < .001$

표 4에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슬픔의 원인은 남녀 모두에게 목표 성취의 좌절이었다. 남학생의 경우에, 불행한 사건의 인지 결과, 이별, 친한 사람의 사망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이별, 불행한 사건들의 인지 결과, 그리고 친한 사람의 사망이 슬픔의 원인

으로 나타났다. 표현 방식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에 “나름대로 해결한다”가 가장 많고, 옳거나 “표현하지 않는다”가 같은 빈도로 많은 편으로 보고되었으며 대화를 하여 슬픔을 나누는 빈도는 적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슬픔의 표현으로 우는 것이 가장 많고, 나름대로 해결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것이 그 다음 순으로 많았다. 슬픔의 유발 원인과 표현 방식에서 남녀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우울

표 5. 우울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

유·범주	성별		남		여		계	
	n	%	n	%	n	%	n	%
발·원인	욕구 좌절	189	58.15	153	49.20	342	53.77	
	외적상황의 인지 결과	92	28.31	118	37.94	210	33.02	
	대인 관계 갈등	30	9.23	34	10.93	64	10.06	
	이유 없음	14	4.31	6	1.92	20	3.15	
계	325	100.00	311	100.00	636	100.00		
표·현 방식	과대 활동	11	3.79	8	3.36	19	3.60	
	행위 위축	71	24.48	51	21.43	122	23.11	
	대 화	26	8.97	16	6.72	42	7.95	
	나름대로 해결	182	62.76	163	68.49	345	65.34	
계	290	100.00	238	100.00	528	100.00		

$\chi^2 = 10.155, p < .05, \quad ** \chi^2 = 2.079, n.s.$

우울의 유발 원인을 보면 남녀 모두 욕구 좌절이 가장 많은 원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외적 상황의 인지 결과, 대인 관계 갈등의 순으로, 그리고 이유 없이 우울한 경우도 소수로 나타났다. 우울 정서의 표현 방식은 남녀 모두 나름대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빈번하고, 행위가 위축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고, 대화를 통하거나 과대 활동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앞의 두가지 방식보다는 드문 것으로 나타

났다.

우울의 유발 원인과 표현 방식은 남녀에게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원인에서 나타난 성차는 의미있는 것이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욕구 좌절”때문에 더 우울해 하며, 여학생에게 욕구 좌절이외에 “외적 상황 인지 결과”가 남학생보다 우울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분노

분노의 유발 원인을 보면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 즉, 남학생의 경우에는 불쾌한 상황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대인관계에서의 배신감이 가장 빈번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현 방식은 남녀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나름대로 해결, 언어적 공격, 표현하지 않는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에 비해서 나름대로 해결하고, 언어적 공격을 하는 것이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에 있어서의 성차는 의미있는 것이다.

표 6. 분노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

유·범주	성별		남		여		계	
	n	%	n	%	n	%	n	%
발·원인	욕구 좌절	61	19.01	70	23.33	131	21.10	
	불쾌한 상황	134	41.74	108	36.00	242	38.96	
	대인관계에서의 배신감	126	39.25	122	40.67	248	39.94	
	계	321	100.00	300	100.00	521	100.00	
표·현 방식	표현하지 않음	49	15.26	46	17.62	95	16.32	
	신체적, 물리적 공격	19	5.92	3	1.15	22	3.79	
	언어적 공격	119	37.07	103	39.46	222	38.14	
	나름대로 해결	134	41.74	109	41.77	243	41.75	
계	321	100.00	261	100.00	582	100.00		

* $\chi^2 = 2.769, n.s., \quad ** \chi^2 = 9.370, p < .05$

7. 혐오

표 7. 혐오의 유발원인과 표현양식

유·범주	성별		남		여		계		
	n	%	n	%	n	%	n	%	
발원인	잘난척 하는 사람	37	12.09	49	17.19	86	14.55		
	위선적인 사람	44	14.38	51	17.89	95	16.07		
	부도덕한 사람	150	49.02	115	40.35	265	44.84		
인식	자신에 대한 혐오감	25	8.17	16	5.61	41	6.94		
	정그럽고 혐오스러운 것들 (예: 음식, 냄새, 물건)	50	16.34	54	18.95	104	17.60		
계	306	100.00	285	100.00	591	100.00			
표현방식	표현하지 않음	88	30.88	56	23.83	144	27.69		
	나름대로 표현	142	49.82	126	53.62	268	51.64		
	신체적, 언어적 공격	55	19.30	53	22.55	108	20.77		
계	285	100.00	235	100.00	520	100.00			

* $\chi^2 = 8.206$, n.s., ** $\chi^2 = 3.326$, n.s.

혐오의 유발원인과 표현 방식은 남녀 모두에게서 일관성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유발 원인을 보면 “부도덕한 사람”이 가장 빈번한 원인으로 나타났다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은 적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현 방식은 나름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며, 표현하지 않는 것도 그 다음으로 많은 빈도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유의할 만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은 아니다.

8. 공포-불안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포-불안의 유발 원인으로 예기되는 불확실성, 고립감, 갑작스러운 변화, 간접 경험에 의한 무서움이 보고되었으며, 남녀 모두에게 예기되는 불확실성이 공포-불안의 가장 빈

번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포-불안의 표현 방식으로 나름대로 표현하거나, 안절부절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남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현하지 않음”의 빈도가 도피보다 많은 것도 유의할 만한 현상이다.

공포-불안의 유발 원인과 표현 방식에서 나타난 성차는 대단히 유의미한 것이다. 즉, 공포-불안은 남학생의 경우에 “예기되는 불확실성”이 여학생 경우보다 더 빈번한 원인이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고립감”, “간접 경험에 의한 무서움”, “갑작스러운 변화”가 남학생보다 더 빈번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현 방식에서 여학생(34.87%)이 남학생(21.13%)보다 더 “안절부절”해 하는 경향이 있다.

표 8. 공포-불안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

유·범주	성별		남		여		계		
	n	%	n	%	n	%	n	%	
발원인	예기되는 불확실성	227	75.67	176	62.19	403	69.13		
	고립감	33	11.00	49	17.31	82	14.07		
	갑작스러운 변화	21	7.00	26	9.19	47	8.05		
	간접 경험에 의한 무서움	19	6.33	32	11.31	51	8.75		
계	300	100.00	283	100.00	583	100.00			
표현방식	안절부절함	60	21.13	83	34.87	143	27.39		
	도피	23	8.10	14	5.88	37	7.09		
	나름대로 표현	153	53.87	112	47.07	265	50.77		
	표현하지 않음	48	16.90	29	12.18	77	14.75		
계	284	100.00	238	100.00	522	100.00			

* $\chi^2 = 12.973$, $p < .005$, ** $\chi^2 = 12.967$, $p < .005$

9. 수줍음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줍음을 유발하는 원인으로서는 새로운 상황에 있는것, 대중 앞에 서는 것,

자신의 치부가 노출되는 것, 그리고 칭찬을 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인에서 나타나는 성차는 의미있는 것이다. 즉, 남학생은 새로운 상황과 치부가 노출될 때 수줍어 하는데 비해서, 여학생은 대중 앞에 서거나 칭찬 받을 때 남학생에 비해서 더 수줍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줍음의 표현 방식으로는 신체적, 생리적 반응을 보이거나 무관심한 척하거나 또는 다름대로 해결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남녀 모두 신체, 생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빈번하다. 통계적 의미는 없으나 남학생은 다름대로 수줍음을 해결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서, 여학생은 무관심한 척하는("내승떠는") 빈도가 더 많았다.

표 9. 수줍음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

유* 범주	성별	남		여		계	
		n	%	n	%	n	%
발원인	새로운 상황	124	38.39	105	35.23	229	36.88
	대중앞에 서는 것	87	26.93	90	30.20	177	28.50
	치부가노출되는 것	75	23.22	50	16.78	125	20.13
	칭찬, 과대 평가	37	11.46	53	17.79	90	14.49
계		323	100.00	298	100.00	621	100.00
표현방식	무관심한 척함.	73	27.14	63	27.88	136	27.47
	신체, 생리적 반응	104	38.66	105	46.46	209	42.23
	다름대로 해결	92	34.20	58	25.66	150	30.30
	계		269	100.00	226	100.00	495

* $\chi^2 = 8.749, p < .05$, ** $\chi^2 = 4.747, n. s.$

10. 수치심

수치심은 남녀 모두 자신의 무능력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수치심의 표현 방법은 다름대로 해결하는 것, 신체적, 생리적 반응으로 표

현되고 있으며,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남자 14.67%, 여자 19.25%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에 대한 성차는 의미있게 나타났다.

표 10. 수치심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

유* 범주	성별	남		여		계	
		n	%	n	%	n	%
발원인	자신의 무능력	243	96.81	197	94.71	440	95.86
	기타	8	3.19	11	5.29	19	4.14
계		251	100.00	208	100.00	459	100.00
표현방식	표현하지 않음	38	14.67	41	19.25	79	16.74
	다름대로 해결	165	63.71	109	51.17	274	58.05
	신체적, 생리적 표현	56	21.62	63	29.58	116	25.21
	계		259	100.00	213	100.00	472

* $\chi^2 = 1.266, n. s.$ ** $\chi^2 = 7.560, p < .05$

11. 죄책감

표 11. 죄책감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

유* 범주	성별	남		여		계	
		n	%	n	%	n	%
발원인	사회적 규범 위배	90	31.03	68	28.33	158	29.81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	200	68.97	172	71.67	372	70.19
계		290	100.00	240	100.00	530	100.00
표현방식	언어적 표현	72	25.00	74	31.09	146	27.76
	물질적 보상	25	8.68	24	10.08	49	9.32
	다름대로 해결	191	66.32	140	58.83	331	62.92
계		288	100.00	238	100.00	526	100.00

* $\chi^2 = .458, n. s.$ ** $\chi^2 = 3.182, n. s.$

죄책감을 유발하는 원인은 사회적 규범 위배나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죄책감

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남녀 모두에게 일관성있게 나름대로 해결하는 것, 언어적 표현, 물질적 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죄책감의 유발 원인과 표현 방식에서 성차는 없었다.

12. 사랑

표 12. 사랑의 유발원인과 표현방식

유발원인	성별	남		여		계	
		n	%	n	%	n	%
모성애		24	7.72	44	15.28	68	11.35
이성의 매력		188	60.45	130	45.14	318	53.09
우정		12	3.86	24	8.33	36	6.01
보편 타당성에 의해서		87	27.97	90	31.25	177	29.55
계		311	100.00	288	100.00	599	100.00
표현방식	표현하지 않음	94	31.64	72	28.57	166	30.24
	접근, 관심	77	25.93	73	28.97	150	27.32
	신뢰로운 행동	15	5.05	6	2.38	21	3.82
	희생, 헌신	31	10.44	28	11.11	59	10.75
	언어적, 신체적 표현	80	26.94	73	28.97	153	27.87
계		297	100.00	252	100.00	549	100.00

* $\chi^2 = 19.658, p < .001$ ** $\chi^2 = 3.689, n.s.$

표 12에 의하면, 사랑의 유발 원인은 남녀 모두 이성의 매력이 가장 빈번하고, 보편 타당성에 의해서, 모성애, 우정을 느낄 때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남학생은 사랑의 원인으로 이성의 매력을 여학생보다 더 빈번하게 꼽고 있는데 비해서, 여자 대학생은 보편 타당성에 의해서, 모성애도 사랑의 유발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성차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이다. 사랑의 표현 방식은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언어적, 신체적 표현과 관심을 끄는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는 여자보다는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여자는 관심을 끌거나, 언어적, 신체적 표현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

방식에서의 성차는 의미있는 것은 아니다.

는 의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청년의 정서에 관한 특징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서의 유발 원인과 표현 방법으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한다.

유발 원인

흥미 : 흥미는 가장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 정서이다. 흥미를 끄는 원인이 신기한 것, 유사한 것, 성취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라는 본 연구 결과는 Izard(1991)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Izard는 흥미는 성취 동기를 유발하여 성공감을 갖게하여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케 한다고 논의했다. 그의 논의는 본 연구의 피험자가 대학생이므로, 청년기가 지식 추구에 지향되어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단히 시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기쁨 : 기쁨은 감각적 쾌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Izard,1991), 본 연구 결과에서 원인으로 욕구 충족, 만족스런 대인 관계 및 인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에서 욕구 충족은 성취 욕구의 충족을 의미한다. 또 이 결과는 "흥미" 정서에서 나타난 원인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놀람 : 놀람은 자극이 극도로 증가함으로써 활성화되기 때문에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의미의 정서는 아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놀람의 원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감각적, 신체적 자극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1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Izard(199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슬픔 : 슬픔은 편의상 부정적 정서의 하나로 고려되기도 하지만,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서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 슬픔의 원인은 "목표 성취 좌절"이 가장 빈번한 원인으로, 불행한 사건의 인지 결과, 이별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Izard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남자 대학생은 불행한 사건들의 인지 결과가 슬픔의 빈번한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비해서, 여자 대학생은 남학생보다 이별은 더 빈번한 슬픔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본 연구 결과는, 남자 대학생은 인지적으로 지향되어 있고, 여자 대학생은 자아 관여 또는 애착에 더 지향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목표 성취 좌절”이라는 슬픔의 원인은 “욕구 충족”이 빈번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쁨의 원인과는 상반된다. 따라서 슬픔과 기쁨은 반대되는 정서라고 볼 수 있다. 슬픔의 심리적 원인은 인간, 대상 또는 다른 상징과의 정서적 애착에서 유래된다고 보고, 슬픔을 애착과 격리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Averill, 1968; Bowlby, 1969, 1973). 따라서 이러한 접근 시도는 추후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

우울 : 우울은 가장 보편적인 심리적, 심리 병리적 문제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 욕구 좌절, 외적 상황, 대인 관계 갈등이 우울의 원인으로 나타난 것은 심리적 문제로 발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본다.

분노 : 분노의 원인은 욕구 좌절, 불쾌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는데(Izard, 1991), 본 연구에서도 일치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본 결과에서 “대인 관계에서 배신감”이 가장 빈번한 원인으로 나타난 것은 Izard의 보고와는 다른 독특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노에 관한 심리적, 문화적 변인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혐오 : Rozin과 Fallon(1987)은 혐오를 심리학적 오염 대상에 대한 거부이며, 혐오의 기원은 음식과 관련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혐오의 원인을 “부도덕한 사람(심리적 오염 대상),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음식 또는 나쁜 냄새나는 물건”으로 들고 있는 본 연구 결과는 Rozin과 Fallon의 주장과 일치되는 것이다.

공포-불안 : Izard(1991)의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공포-불안의 원인은 예기되는 불확실성, 고립감, 갑작스런 변화 곧 낯섬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

자 대학생은 여자 대학생 보다 객관적 상황(예기되는 불확실성)에 지향되어 있으며, 여자 대학생은 남자 대학생보다 고립감과 같은 자기-관여에 지향되어 있다.

수줍음 : 수줍음의 특정 행동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거의 없다. 수줍음을 경험하는 것은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에 대해 확신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새로운 상황이나 대중 앞에 서는 것, 치부가 노출되는 것을 수줍음의 원인으로 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예상과는 달리 남자 대학생보다 여자 대학생들이 대중 앞에 서는 것을 더욱 부끄럽게 여기는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여자 대학생이 칭찬이나 과대평가를 받는데서 수줍음을 느끼는 것은 Scherer와 그의 동료들이 시사한 바와같이 사회적 규범, 곧 전통적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랑의 유발원인(남성다움-여성다움)에서도 나타나 있다.

수치심 : 수치심은 분노나 두려움 같은 정서에 비해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수치심이 개인적, 사회적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때 Darwin(1872)은 수치심, 수줍음, 죄의식을 동의어로 사용한 적도 있다. “자신의 무능력”이 유일한 수치심의 원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후속 연구로 보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죄책감 : 죄책감은 다른 정서들과 같이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통해 나타난 기본 정서라고 정서 분화 이론(differential emotion theory)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죄책감은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서 정서-인지-행동 양식의 발달에 가장 핵심적인 정서이다(Izard, 1991).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과 사회적 규범 위배를 죄책감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는 본 연구 결과는 Izard의 연구 결과와 일치된다.

사랑 : 사랑에 관한 연구는 “사랑”의 정서를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로 연구되어 오지 못했다. 사랑은 감정과 사고, 및 생물학적 추동도 관련이 되어

있는 “고도의 복잡체”로서, 많은 학자들이 신비롭다고 말할 정도이다(예: Izard, 1991).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 대학생들은 사랑의 원인을 모성애, 우정, 이성의 매력(Izard가 romantic love로 범주화한) 등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보편 타당성에 의한 상동형을 사랑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문화 특수적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추후 연구가 요청된다.

정서 유발 원인에서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인 정서는 기쁨(748개), 슬픔(646개), 우울(636개)이고, 가장 적게 반응을 보인 정서는 수치심(459개)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미루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긍정적 정서가 풍부한 건강한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다(기쁨 > 슬픔, 우울).

표현 양식

우리나라 청년의 각 정서에서 보이는 표현은 Izard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부분이 많다. 흥미가 유발되면 적극적인 탐색을 하는 것, 기쁨 때 웃는 것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기쁨 때 표현을 하지 않거나, 또는 대화를 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share) 비율이 적은 것은 Izard(1991), Plutchik과 Kellerman(1989)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요인에 의한 차이로 간주되는 현상은 Bowlby(1973)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회화 과정의 맥락과 관련시켜 체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놀랐을 때 신체적, 언어적 표현이 많은 것은 Izard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나, 표현을 하지 않고 억제하는 비율도 상당한 것은 다른 점이다.

본 연구에서 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표현을 하지 않고 억제하는 정서로서 위에서 언급된 기쁨, 놀람 이외에 슬픔, 분노, 혐오, 공포-불안, 수치심, 사랑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대학생들은 정서를 표출하기 보다는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Scherer와 그의 동료

들(1986)의 연구에서 독일 사람이 미국인이나 다른 유유럽 사람보다 분노 표현을 억압하는 결과가 사회적 규범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후 연구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서들을 억압하는 것은 자칫 정신 병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Izard, 1991), 다른 심리학적 변인들과 관련시킨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슬픔, 우울, 분노, 혐오, 수줍음, 수치심 및 죄책감이 유발되었을 때, 나름대로 해결하는 비율이 높았다. 나름대로 해결이란 “억제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나 담배, 또는 반성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혼자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Izard의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또 특기할 만한 것으로 이들 정서가 유발되었을 때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비율도 적다는 결과이다. 나누면 “기쁨은 두배”, “슬픔은 반으로”라는 통념과 상식은 허구일 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슬플 때 울고, 우울할 때 행동이 위축되는 것, 화났을 때 언어적,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것, 혐오스러울 때 상대하지 않거나 공격하는 것, 불안할 때 안절부절 하는 것, 수줍거나 부끄러울 때, 죄책감을 느낄 때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이는 것, 그리고 사랑을 느낄 때 접근, 보호, 양육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Izard의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

성차

본 연구의 주 목적은 정서의 유발 원인과 표현 방식을 알아 보는 것이고, 성차는 부수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정서에서 유발 원인과 표현 방식에 성차를 보인 것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고 생각된다. 우선 유발 원인에서 남자 대학생은 놀람, 분노, 혐오, 공포-불안, 수줍음, 수치심, 죄책감, 사랑의 정서에서 외적 사건이나 상황에 지향되어 있는데 비해서, 여자 대학생은 놀람, 공포-불안(“고립감”), 수줍음(대중 앞에 서는 것), 사랑(“상동형”,

“모성애”)에서 자아-관여, 또는 자아-지향적인 특
 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을 남자
 대학생의 정서 유발 원인은 “사건-지향적”. 그리고
 여자 대학생의 경우는 “자아-지향적”이라는 용어로
 명명하고자 한다.

표현 방식에서 나타나 성차는 “표현을 안 한다”
 는 정서에서 볼 수 있다. 남자 대학생은 놀람, 슬픔,
 혐오, 기쁨, 공포-불안, 사랑에서 여자 대학생보다
 표현을 하지 않으며, 여자 대학생은 분노, 수치심 정
 서에서 남자 대학생보다 표현을 하지 않고 억압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화 과정에
 서 성역할 학습의 영향이라고 해석된다. 이 주제도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여겨진다.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는 Ekman과
 Oster(1989) 등이 주장한 얼굴 표정, 개인차와 개인
 특성(예: 연령, 성격, 지능), 생리적 현상 그리고 보
 다 정교한 질문지법 등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 경희(1995). 정서란 무엇인가. 민음사
 Arnold, M. B. (1960). *Emotion and personality*,
 Vol.2.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Asendorpf, J. B.(1984). Laeeen sich emotionale
 Qualitaten Verhalten unterscheiden? *Psycholo-
 gische Rundschau*, 35, 125-135.
 Averill, J. R. (1968). Grief: its nature and signifi-
 cance. *Psychological Bulletin*, 70, 721-748.
 Averill, J. R. (1982). *Anger and aggression : An
 essay on emotion*. Now York: Springer.
 Bernstein, D. A., & Allen, G. J.(1969). Fear
 survey schedule II: Normative data and fac-
 tor analysis based upon a large college sam-
 ple.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7, 403-
 407.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Darwin, C.(1965).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2nd authorize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riginally published, 1872).
 Davitz, J. R. (1969). *The language of emotion*.
 New York.
 Easterbrook, J. A. (1969). The effect of emotion
 on the utiliz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Psychology Review*, 66, 183-201.
 Ekman, P., & Oster, H.(1979). Facial expression of
 emo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0,
 527-554.
 Geer, J. H.(1965). The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fear.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 45-53.
 Hupka, R. B.(1981). Cultural determinant of jealo-
 usy. *Alternative Lifestyle*, 4, 311-356.
 Izard, C. (1977). *Human emotions*. New York:
 Plenum.
 Izard, G. E. (1991). *The Psychology of emotions*.
 New York: Prenum Press.
 Izard, C. E., & Buechler, S. (1979). Emotion
 expression and personality integration in
 infancy. In C. E. Izard(ed.), *Emotions in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pp. 447-
 472). New York: Plenum.
 Lazarus, R. (1968). Emotions and adaptations. In
 W. J. Arnold (Ed), *Kebraska symposium on
 moivation*. Nebraska.
 Magnusson, D., & Stattin, H.(1981). *Situation
 -outcome contingencies: A conceptual and
 empirical anaylsis of threatening situations*.
Report No. 571. Stockholm, Sweden: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 Stockholm.
- Magnusson, D., & Stattin, H.(1982). Methods for studying stressful situations. In H. W. Krohne & L. Laux(eds.), *Achievement, stress, and anxiety*(317-331). Washington, DC : Hemisphere.
- Pennebaker, J. W.(1982). *The psychology of physiological symptoms*. New York: Springer Verlag.
- Plutch, K. R.(1980). A general Psychoevolutionary theory of emotion. In R. Plutchi K., & H. Kellerman(eds.), *Emotion: Thoery, Research, and Experience., (Vol. 1)*. London: Academic Press.
- Pribram, K. H. (1967). A new neurology and the biology of emotion. *Amer. Psychol.*, 22, 830-838.
- Rose, R. J., & Ditto, W. B.(1983). A developmental-genetic analysis of common fears from early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Child Development*, 54, 361-368.
- Rozin, P., & Fallon, A. E. (1987). A perspective on disgust. *Psychological Review*, 94(10), 23-41.
- Schachter, S. & J. E. Singer. (1962). Cognitive, social and physiological determinants of emotional state. *Psychol. Rev.*, 69, 379-399.
- Scherer, K. R.(1989). Vocal measurement of emotion. In R. Plutchik & H. Kellerman(eds.), *Emotion: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 Vol. 4*. New York: Academic Press.
- Schwartz, G. E., & Weinberger, D. A.(1980). Patterns fo emotional responses to affective situations: Relations among happiness, sadness, anger, fear, depression, and anxiety. *Motivation and Emotion*, 4, 175-191.
- Sokolov, E. N. (1960). Neuronal models and the orienting reflex. In M. A. B. Brazier (Ed.), *The central nervous system and behavior*. New York, 187-276.
- Stampfl, T. G. (1966). Implosive therapy: the theory, the subhuman analogue, the strategy, and the technique. In S. G. Armitage(Ed), *Behavior modification techniques in the treatment of emotional disorders*. Battle Creek (Mich.), 12-21.
- Storms, M. D.(1973). Videotape and the attribution process: Reversing actor's and observer's point of 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7, 165-175.
- Tomkins, S. S. (1962). *Affect, imaginary, consciousness(Vol. 1): The positive affects*. New York: Springer Verlag.
- Tomkins, S. S. (1963). *Affect, imaginary, consciousness(Vol. 2): The negative affects*. New York: Springer Verlag.
- Traxel, W. (1969). Gefühl und Gefühlsausdruck. In R.Meili & H. Rohrachter (Hrsg.), *Lehrbuch der experimentellen Psychologie*. Bern-Stuttgart.
- Wallbott, H. G., & Scherer, K. R.(1985). Differentielle situations und Reaktion-scharakteristika in Emotionserinnerunge: Ein neuer Forschungsansatz. *Psychologische Rundschau*, 36, 83-101.
- Wicker, F. W., Payne, G. C., & Morgan, R. D. (1983). Participant descriptions of guilt and shame. *Motivation and Emotion*, 7, 25-39.
- Wundt, W.(1874). *Grundzüge der physiologischen Psychologie*. Leipzig.
- Wundt, W.(1905). *Grundzüge der physiologischen Psychologie(Vol. 3)*. Leipzig, GDR: Engelman.